

패션이미지에 따른 패션쇼 모델의 신체연출에 관한연구 - (제1보) 우아미와 중성미를 중심으로 -

허민정·정성지**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Model Postures at Fashion Shows According to Their Clothing Fashion Images: Focusing on Elegance Image and Neutral-gender Image

Min-Jung Heo · Sung-Jee Chung**

Ph D. Course, Graduate school of Fash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 Dept. Fashion Design School, Dongduk Women's University**

(2013. 12. 19. 접수; 2014. 1. 27. 수정; 2014. 2. 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model postures at fashion shows with respect to expressing fashion images including elegance and neutral-gender images. Data were gathered from the fashion shows held 2000 S/S through 2009 F/W, when elegance and neutral-gender fashion images were obvious in fashion collections. Three designer brands representing elegance and neutral-gender fashion images were selected by the researcher and fashion specialists including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fashion. The fashion collection photos representing each image were selected from style.com, a website which contains four world's biggest fashion collections.

The results showed different hand positions as a model posture according to fashion images. In the neutral-gender image, 16 photos (47%) showed a hand position at pockets, in the elegance image, 24 photos (82.3%) showed a hand position laying down by the sides. Also, walking pose was shown to be different between two fashion images. In the neutral-gender fashion image, 16 photos (52.9%) revealed a pose of 'natural walk', while 29 photos (100%) showed a pose of 'walk in a straight line' in the elegance imaged fashion. In conclusion, the neutral-gender image photos showed the pocket-positioned hand and the 'natural walk' poses more than elegance image photos, and elegance image photos revealed the hand position laying down by the sides and the 'walk in a straight line' poses than the photos of the neutral-gender image.

Key Words: Fashion image(패션이미지), Fashion model(패션모델), Walking style(워킹스타일), Fashionshow direct(패션쇼연출)

I. 서론

21세기 소비자들은 매스미디어의 기술발달로

취향에 맞는 매체를 찾아 자신이 원하는 패션스타일을 선택하며 트렌드를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개성 혹은 감각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로 선

Corresponding author ; Min-Jung Heo

Fax. +82-2-763-7046

E-mail : yesvictory@daum.net

택한다.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대중들로 하여금 패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이러한 변화로 대중들에게 패션쇼에 대한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패션스타일에서의 패션이미지는 여성의 보이지 않는 여성성을 부각시키거나 스타일링을 통하여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내거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미적가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패션이미지를 전달하는 패션모델은 개성을 표현하고 때론 감성적인부분까지 그대로 전달되어 보여지는 소통적 수단이며 현대패션에서의 소비자들은 패션스타일을 선택하여 자신의 감성과 개성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패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패션모델의 신체적 특성까지 모방하여 본연적 욕구를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패션의 이미지를 통해 사회 속에 내재되어있는 이상적 신체미와 유행하는 패션에 매혹되면서 자기표현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패션모델은 패션상품의 판매적기능을 위해 그 시대의 이상적인 미를 대표하는 것이다(김소영, 2001; 류수현 & 김미자 2009). 이처럼 현대패션은 자신만의 정체성 표현을 위해 이미지소비형태의 특성을 보이고 패션모델은 과거 디자이너의 작품을 보여주는 도구적인 요소에서 워킹, 핸드포지션 연출이라는 움직임 통하여 관객과 소통한다.

패션모델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트렌드를 통한 모델의 변천에 관한 연구로 ‘60년대 이후 패션트렌드를 중심으로 본 패션모델 이미지’(성광숙, 2004), ‘2000년 이후 패션의 주요트렌드와 트렌드이미지’(류숙영, 2010), ‘패션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미’(김소영, 2002) 등의 연구가 있으나 패션쇼에서의 패션이미지와 패션이미지를 나타내는 패션모델의 신체적 연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목적은 현대패션중 이미지로 나타나는 패션스타일을 선정하여 패션쇼에서 패션이미지 전달자로서의 패션모델의 워킹과 핸드포지션을 포함한 의상을 통해 연출되어지는 신체적 연출에 대하여 알아보고 중성미와 우아미에 따른 신체연출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위해 패션디자인 전문서적, 관련 논문을 통하여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충족

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주 대상이 되는 여자 패션모델에 대한 미적 관련자료는 컬렉션자료를 통하여 관찰하였고, 영향력 있는 패션전문사이트인 style.com, models.com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우아미와 중성미의 패션이미지의 정의와 특성에 따라 분석 후 패션이미지에 따른 패션모델의 워킹과 의상에 따른 핸드포지션의 연출, 패션이미지에 맞는 모델의 특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우아미와 중성미라는 상반된 패션이미지 선택하였고 각각의 패션이미지를 통해 패션모델의 기본적인 신체연출요소외의 의상연출의 차이, 패션모델의 미적특성과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패션모델의 움직임의 표현과 연출이 패션쇼 관객의 몰입도를 배가시키는 중요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패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패션이미지에 나타난 패션스타일

1. 패션이미지

패션이미지는 대상을 의복으로 한정된 연구의 경우에서 의복 이미지로 분류되는데 의복 이미지는 의복 디자인의 요소인 색채, 재질, 형태의 특성과 관련되어 변화된다. 이 요소들의 시각적 특성이 독립적으로 의복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고 서로 결합하여 의복의 전체적 이미지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감정, 정서들을 전달하여 심리적인효과를 좌우한다(백형은, 2011; Horn & Gurel, 1981).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 중 패션이미지로 나타나는 여성성 이미지의 우아미와 상반된 패션 이미지인 남성성 이미지인 중성미를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선정브랜드는 우아미가 Christian Dior, Valentino, Chanel, 중성미는 Donna Karan, Givenchy, YSL로 패션트렌드의 흐름이 브랜드 패션지향에 잘 부각됨에 따라 우아미와 중성미로 표현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며 국내의 패션

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많은 논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브랜드이다. 또한 우아미와 중성미에 해당되는 브랜드의 패션이미지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된 패션이미지이며 디자인 요소인 색채, 재질, 형태의 특성을 토대로 시각화하여 정의하였다.

1) 우아미

엘레강스(Elegance)는 여성 미의식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숙한 여성의 우아하고 아름다운이 표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스타일은 1950년대에 유행했으며 부드러운 여성미를 강조했던 뉴욕은 1940년대 Christian Dior에 의해 발표되었다. Christian Dior은 뉴욕을 발표하면서 '나는 여성을 꽃에서 창조하였다. 여성의 매력을 드러내는 둥근 어깨와 풍부한 가슴, 풀쭉기처럼 가는 허리, 벨 형태의 스커트는 꽃이 활짝 핀 것과 같이 아름답고 우아하게 하여 엘레강스를 부흥시킨다.'고 하였으며 부드러운 여성미를 강조했던 뉴욕은 전쟁에 지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우아미는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아름답다'는 정의 하에 패션이미지로 아름다운 형상이나 수려한 자태에서 느낄 수 있는 고전적인 기품과 멋이 느껴지는 이미지다(고현진, 2004). 실루엣의 형태는 허리를 강조하고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강조한 아우어 글래스 실루엣으로 피트앤 타이트 실루엣과 프린세스 실루엣, 크리놀린 실루엣, 머메이드 실루엣, 버슬 실루엣등 부드러운 곡선의 둥근 어깨선과 부풀린 가슴선, 잘록한 허리의 웨이스트라인을 강조하는 인체의 곡선을 살린 타이트 실루엣이 특징이다(유소영, 2011).

실루엣 형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아미는 인체의 곡선이 부각되는 형태로 여성들의 여성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 표현되어왔으며 현대패션에서는 브라운계열로 성숙 미를 와인계열의 컬러로 우아함을 표현하거나 전형적인 여성스러움과 또렷한 이목구비 그에 따른 아름다움과 성숙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미의 기준이 시대변화와 트렌드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일 줄 알았으나 기존의 미와 큰 변화 없음을 패션을 통해 알 수 있었고 그러

나 모델표현의 수단에 따라 입은 옷의 느낌 전달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2) 중성미

중성미는 하나의 신체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패션이미지로 여성이 지닌 남성적 이미지 또는 중성적 이미지가 이에 속한다. 자신의 성을 유지하면서도 패션·헤어스타일 등에 대해 반대의 성적매력을 표출시켜 패션 트렌드의 특성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매니시(Manish)와 밀리터리(Military) 패션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매니시(Manish)는 '남성풍, 남자와 같은 여성'이라는 뜻으로 남성복 디자인을 여성복에 적용하여 여성다운 감각으로 표현한 스타일이다. 실루엣의 특징은 straight silhouette이며 바지와 재킷이 주를 이루고 타이, 셔츠 등을 입고 여기에 섬세한 액세서리로 오히려 여성의 매력을 표현한다. 이러한 매니시는(Manish) 남성적 디테일에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복합적인 이미지를 공존시킨다. 밀리터리(Military)는 군복의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은 패션스타일이며 군대, 군인, 육군풍의 뜻으로 패션에서 군복 풍의 요소로 디자인된 것이다. 전제스타일이 기능적이고 활동적이고 육군의 복식에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아미 룩과 같은 협의적 의미와는 달리 여성패션에서 군복의 요소를 변형하여 디자인된 광의적 의미의 군복 스타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밀리터리 디자인의 특징은 직선적이고 견장이나 구슬, 금장단추 등을 활용하여 나타나는데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슬림하고 단순화된 디자인에 미를 더하게 된다.

현대패션에 있어서 중성미는 컬렉션에서 패션트렌드에 의해 그 형태나 디테일의 요소가 재창조 되고 있다.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둘 이상의 이미지가 서로 공존하여 복합적인 이미지를 내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변화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스타일이다.

2. 패션이미지에 나타난 모델의 신체적 연출

패션쇼에서 모델의 움직임은 디자이너의 의

도를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각인된 이미지로 보여준다. 패션쇼에서 보여지는 패션모델의 워킹, 핸드포즈, 턴, 시선처리와 같은 신체적 움직임을 연출이라 하며 메이크업된 얼굴에 모델의 눈빛을 통해 의상표현을 완성하거나, 핸드포지션을 이용한 의상연출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복잡성 수준이 다양하게 여러 단계가 있으며 움직임의 복잡성을 눈이 직관적으로 지각하면 역동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매력을 강화시켜주는 미적인 것으로 변화 있는 표현을 통해 여러분위기와 이미지를 창출하고 감정과 내용을 담을 수 있다(박은경, 2005).



<사진 1>

Christian Dior, New Look 1947 (출처: www. style.com)

<사진 2>

Christian Dior Couture, 2008 F/W (출처: Fashion Trend And Image, p.7)

1) 포즈

패션모델은 의상을 통하여 관객에게 디자이너의 의도를 전달하는 효과가 크며 의상의 소재, 디테일을 전달하기 위해 핸드포지션을 등의 포즈를 포함한 의상연출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인다. 의상연출을 위한 핸드포지션은 의상의 디자인에 따라 달라지며 몸의 어느 부위를 강조하고 연출하느냐에 따라 관객의 호응과 몰입도는 달라진다. 다양한 패션이미지의 패션쇼에서 기본적인 워킹과 핸드포즈와 턴, 시선처리에 는 패션모델에 따라 개인의 차가 있으며 다양하게

연출되기도 한다.

<사진1>은 Christian Dior의 뉴룩(New Look)이며 모델이 양쪽손끝을 이용한 연출로 여성미와 우아미를 동시에 표현하였다. <사진2>는 존 갈리아노가 재해석한 Christian Dior Couture의 뉴룩(New Look)이다.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해내었으며 블랙과 화이트의 구성으로 세련미를 보여주며 쿠티르(Couture) 감각에 맞게 형태가 분명하고 심플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이다. 런웨이에서 모델이 허리부위에 손을 얹고 워킹 함으로써 의상의 포인트가 되는 허리부분이 부각됨을 알 수 있으며 이처럼 모델의 핸드포지션의 위치는 런웨이에서 극적인 효과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샤넬이 모델 이미지의 개념을 소개할 때 모델의 이미지는 온화함이었다. 이를 샤넬의 모델들은 한쪽발을 다른쪽 발 앞에 놓고 hips을 앞으로 기울이고 한손은 주머니에 꽂고 다른손은 자유롭게 몸짓을 전달하는 ‘코코 포즈’를 취했다(김소영, 2002).

패션모델의 포즈는 런웨이에서는 의상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패션이미지 전달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프레타포르테, 오프꾸뛰르와 같은 패션쇼는 다음 시즌의 패션트렌드, 트렌드컬러, 아이템 등을 볼 수 있는 분석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미지전달자료로서의 패션모델의 역할이 중요하다.

2) 워킹

패션모델의 워킹은 상징적인 표현성을 가진 미적 행동이며 쇼음악에 따라 속도나 보폭 등에 변화를 주어 생동감으로 관객의 시선을 모은다. 모델이 패션이미지를 재현을 하여 워킹 하는 순간 모든 관객은 주목하고 닦고 싶은 욕구와 감수성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의 모델의 시선과 카메라를 응시하는 표정은 많은 관객들을 압도하고 관객의 감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예술에서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한 것은 움직임의 미적인 표현을 통해 인간은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고 정서적인 교환을 하기 때문이다(김복희, 김화숙, 1980).

따라서 패션모델의 워킹은 패션이미지에 따라 내추럴워킹, 액티브워킹, 매니시 워킹, 섹시워킹

으로 구분되며 걷는 형태에 따라 1자 워킹과 11자 워킹으로 구분된다. 음악에 따라 워킹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있으며 패션쇼에서 음악은 관객에서 감성전달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모델에게 있어 음악의 영향은 워킹뿐만 아니라 모델의 표정과도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이는 음악을 듣고 걷는 모델에게 정서적 표현이 얼굴의 표정을 통해 관객에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우아미와 중성미의 1자 워킹과 11자 워킹 또한 음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패션이미지 특성을 강조하는 워킹이다. 앞서 말한 우아미의 1자 워킹은 일직선상으로 걷는 형태로 어깨가 아래위로 약간의 흔들림이 있으며 이때 어깨 흔들림이 여성성을 부각시켜준다. 반면 중성미의 11자 워킹은 말 그대로 11자로 걷는 형태이며 워킹시 몸의 곡선이 드러나지 않아 의상의 강한 느낌을 전달한다. 따라서 패션모델 또한 음악의 전반적인 이해가 중요하며 런웨이에서 입고나오는 의상을 선율과 박자를 이용하여 연출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패션쇼에서 음악은 쇼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와 연구범위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전문서적과 관련논문을 참고로 패션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우아미와 중성미가 잘 드러나는 브랜드를 선정하였으며 우아미를 대표하는 브랜드로는 Christian Dior, Valentino, Chanel, 중성미를 대표하는 브랜드로는 Donna Karan, Givenchy, YSL로 각각 선정하였다.

우아미와 중성미의 패션사진 선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각 패션 이미지에 해당하는 색채, 재질, 형태의 특성 등 디자인 요소에 맞추어 선정하였으며 컬렉션 동영상자료 및 사진수집은 세계 4대 컬렉션 사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패션전문사이트 style.com을 통해 컬렉션 동영상분석 및 사진을 선별하였다.

연구범위는 2000년을 기점으로 레트로 패션과 매니시 패션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 뚜렷하게 전개되었던 2000년 S/S부터 2009년 F/W까지 총 20시즌으로 한정하였고 선정한 사진은 F/W 57장, S/S 55장이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충족시키고자 선정된 사진은 디자인 요소에 맞추어 선정되었는지 연구자가 재차 확인하였다.

2. 분석 및 자료처리의 방법

선별된 컬렉션 의상 중 연구자가 패션이미지 정의와 특성에 따라 2차 선별하여 모호한 이미지는 제외하였다. 최종선별 작업으로 패션전문대학원 연구원들과 패션디자인학과 강사들로 구성된 총 7명의 패션 전문가에게 사진들이 우아미 또는 중성미 사진들로써의 적합도에 대한 설문문을 통하여 7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적합하다고 선정한 사진들로 최종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패션전문가들이 선정한 컬렉션 스틸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체연출은 핸드포지션 연출과 워킹이었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시켰고 핸드포지션 연출로는 허리위치 연출, 포켓위치 연출과 내려뜨린 위치 연출의 3가지 연출로 분석하였고 워킹은 1자 워킹연출과 11자 워킹연출의 2가지 연출로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패션이미지에 따른 모델의 신체연출 분석

1) 패션이미지에 따른 핸드포지션 연출

중성미와 우아미에 해당되는 패션쇼 사진들의 핸드포지션 연출을 분석하였다. 중성미에 해당되는 패션쇼사진 34장중에서 손의 위치가 포켓에 있는 사진은 16장(47%)이었고, 손을 내려뜨린 상태의 사진이 18장(53%)이었다. 또한 우아미에 해당되는 패션쇼사진 29장중에서 핸드포지션은 내려뜨린 상태의 위치가 24장(82.3%)이었으며, 허리 위치의 사진이 4장(13.8%), 포켓위

<표1> 중성미와 우아미에 따른 패션모델의 핸드포지션연출과 워킹연출 빈도분석결과

구분		중성미				우아미			
		Donna Karan	Givenchy	YSL	합계	Dior	Valentino	Chanel	합계
핸드 포지션	손허리 연출	0	0	0	0	1	2	1	4 (13.8%)
	포켓 연출	2	9	5	16 (47%)	0	0	1	1 (3.44)
	핸드 포지션 없음	4	5	9	18 (53%)	7	14	3	24 (82.3%)
	합계	6	14	14	34 (100%)	8	16	5	29 (100%)
워킹	1자	2	8	6	16 (47.1%)	8	16	5	29 (100%)
	11자	4	6	8	18 (52.9%)	0	0	0	0
	합계	6	14	14	34 (100%)	8	16	5	29 (100%)

치의 사진은 1장(3.44%)이었다. 이는 중성미에서 우아미보다 핸드포지션을 포켓위치에 연출한 비율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아미에서는 대부분 핸드포지션을 내려뜨린 상태로 연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2) 패션이미지에 따른 워킹연출

중성미를 보여주는 패션쇼사진 34장중에서 워킹이 1자 워킹으로 연출한 사진이 16장(47.1%)이었고, 11자 워킹으로 연출한 사진은 16장(52.9%)이었다. 반면 우아미를 보여주는 패션쇼사진 29장중에서 1자 워킹으로 연출한 사진이 29장(100%)이었다. 그러므로 중성미에서는 1자 워킹과 11자 워킹을 고루 연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우아미에서는 1자 워킹으로만 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패션이미지에 나타난 모델특성

본 연구에서는 패션스타일과 패션모델의 연관성, 상호영향관계에 대해 집중하였으며 모델의 이미지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헤어, 메이크업, 소품, 의상 등의 요소를 미적특성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미적특성은 전체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창출된 이미지는 패션 스타일의 완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의복까지는 이미지가 동일하더라도 모델에게 입혀졌을 때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착용자의 얼굴 체형, 미적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다(최은미, 2008). 모델의 신체적 특성엔 대체로 근본적인 공통성이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경향을 가지고 이것을 이미지로 구체화 시킨다면 패션은 단순한 외모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과 감정, 미적 감각을 포함하여 창출된다.

1) 우아미에 나타난 패션모델의 특성

엘레강스한 이미지의 우아미는 허리와 힙이 강조된 실루엣 형태가 특징이며 색상의 경우 고상한 느낌과 세련된 느낌을 받게 하는 중채도 색상의 의상이 주를 이룬다. 현대패션에 제시된 엘레강스가 가지고 있는 우아미 이미지는 우아하면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품위성이 나타낸다. 또한 우아미 이미지의 패션모델의 신체적 특성은 실루엣의 영향으로 어깨는 둥근 어깨이며 가는허리로 여성스런 실루엣과 신체



<사진3> Christian Dior, 2007 S/S
(출처: www.style.com)



<사진4> Valentino, 2006 S/S
(출처: www.style.com)



<사진5> Valention, 2006 F/W
(출처: www.style.com)



<사진6> Chanel Couture, 2008 F/W
(출처: www.style.com)

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체형이다.

또한 스커트의 영향으로 종아리는 적당한 균형을 이루며 가는 발목이 특징이다(사진3). 스타일링의 전반적인분석을 위해 패션쇼 동영상 분석한 결과 스커트의 폭의 영향으로 위킹의 보폭이 영향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펜슬스커트와 H라인의 경우 보폭의 제한을 받았다. 그 외의 경우 스커트의 폭 범위 내에서 어깨너비만큼의 보폭으로 위킹 한다. 여성의 우아하고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특성을 가진 우아미는 위킹시 팔은 양쪽골반을 주축으로 앞뒤 스윙하며 어깨는 여성성이 부각될 정도의 아래위로 흔들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사진4).

<사진5>와 <사진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패션쇼에서 모델이 핸드포지션을 자연스럽게 내리든지 한손 또는 양손모두 허리에 두어 연출함으로써 의상의 실루엣을 정확히 보이고 의상의 컨셉을 관객들에게 확실히 전달되어 극대화된다는 것이 보여진다. 또한 우아미 이미지의 패션모델은 정돈된 눈썹, 높은 광대뼈와 콧날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우아함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외모였으며 <사진7, 8>을 우아미의 미적특성이 나타나는 이미지로 제시한다.

2) 중성미에 나타난 패션모델의 특성

앞서 정의 한바와 같이 현대패션에서 중성미



<사진7> Valention, 2009 F/W
(출처: www.style.com)



<사진8> Valention, 2006 S/S
(출처: www.style.com)



<사진9> YSL, 2008 S/S
(출처: www.style.com)



<사진10> YSL, 2006 F/W
(출처: www.style.com)



<사진11> Ralph Lauren, 2009 F/W
(출처: www.style.com)



<사진12> YSL, 2002 S/S
(출처: www.style.com)



<사진13> Donna karan, 2002 F/W
(출처: www.style.com)



<사진14> Givenchy, 2003 F/W
(출처: www.style.com)

는 하나의 의상에 둘 이상의 이미지가 서로 공존하여 복합적인 이미지를 내고 있으며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변화와도 빼놓을 수 없는 스타일이기도하다.

중성미 이미지의 패션모델의 신체적 특성은 큰 키와 비율적으로 긴 다리가 특징이며 가슴, 엉덩이의 실루엣보다 어깨가 발달된 건강미가 강조되는 체형이다<사진11>. 패션디자인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패션모델의 넓은 어깨는 옷걸이처럼 옷이 걸리는 견고하고 훌륭한 뼈대구실을 하여 본질적으로 패션에서는 플러스요인이 된다. 스타일링의 전반적인 분석을 위해 패션쇼 동영상 분석한 결과 남성적 이미지와 넓은 어깨가 강조된 중성미는 워킹시 어깨와 골반이 거의 동시에 밀고나가는 느낌으로 워킹하며 어깨의 움직임이 적을수록 관객 시선의 분산이 줄어든다(사진12).

중성미는 여성의 강한면을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보폭은 크며 발끝에도 강한 느낌을 담아 11자로 워킹하는 모델에게서 중성적인 힘이 느껴짐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의 경우 팔은 보폭만큼 앞뒤로 크게 스윙하며 핸드포지션을 팬츠의 포켓에 넣어 연출한 모델은 의상의 컨셉을 관객들에게 확실히 전달되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사진13).

현대패션에서 밀리터리와 매니시를 통해 알

아본 중성미의 미적특성은 본래 의상의 성격이 강한 남성적임을 보여주는 스타일로서 눈썹이 두껍고 길게 표현되었고 표현하는 방법과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링이 중성미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준다<사진14>. 또한 중성미 이미지의 패션 모델은 여성의 신체이지만 얼굴의 턱선과 발달된 광대뼈 등으로 중성미와 현대적 대담함이 공존하는 미적특성을 패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사진15, 16>을 중성미의 미적특성이 나타나는 이미지로 제시한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 중 패션이미지로 나타나는 여성성이미지의 우아미와 남성성이미지인 중성미를 선택하여 상반된 디자인특성의 패션이미지와 패션모델의 기본적인 워킹 외에 패션이미지에 따른 패션모델의 신체연출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 패션 이미지에 따라 신체적 연출과 워킹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패션이미지별 모델의 미적특성에도 차이가 있어 개성과 다양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hristian Dior, Valentino, Chanel을 통해 분석한 우아미의 핸드포지션 연출 분석결과, 내러티브

린 상태의 위치가 24장(82.3%), 허리 위치의 사진이 4장(13.8%), 포켓위치의 사진은 1장(3.44%)이었으며 위킹은 1자 위킹으로 연출한 사진이 29장(100%)으로 나타났다. 패션이미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첫째,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품위성이 나타났으며 둘째, 우아미 이미지의 패션모델 신체적 특성은 실루엣의 영향으로 어깨는 둥근 어깨에 가느다리로 여성스런 실루엣과 신체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체형이었다. 셋째, 패션쇼 동영상 분석한 결과 스커트폭의 영향으로 위킹시 보폭이 영향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스커트의 폭 범위 내에서 어깨너비만큼의 보폭으로 위킹을 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우아하고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특성을 가진 우아미는 위킹시 팔은 양쪽골반을 주축으로 앞뒤 스윙하며 어깨는 여성성이 부각될 정도의 아래위로 흔들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아미 이미지의 패션모델의 미적특성은 정돈된 눈썹, 높은 광대뼈와 콧날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우아함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외모의 특징을 패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Donna Karan, Givenchy, YSL을 통해 분석한 중성미의 해당되는 핸드포지션 연출 분석결과, 34장중 손의 위치가 포켓에 있는 사진은 16장(47%), 손을 내려뜨린 상태의 사진이 18장(53%)이었으며 위킹은 1자 위킹으로 연출한 사진이 16장(47.1%), 11자 위킹으로 연출한 사진은 16장(52.9%)으로 나타났다. 패션이미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첫째, 디자인의 단순성과 포켓을 이용한 디테일로 기능성과 트렌드적용으로 인해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둘째, 중성미 이미지의 패션모델 신체적특성은 큰 키와 비율적으로 긴 다리가 특징이며 가슴, 엉덩이의 실루엣보다 어깨가 발달된 건강미가 강조되는 체형이었다. 셋째, 패션쇼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남성적 이미지와 넓은 어깨가 강조된 중성미는 위킹시 어깨와 골반이 거의 동시에 밀고나가는 느낌으로 위킹하며 팔은 보폭만큼 앞뒤로 크게 스윙하였다. 이때 어깨의 움직임이 적을수록 관객 시선에서 봤을 때 시선분산이 적었으며 모델이 핸드포지션을 팬츠의 포켓에 넣어 연출했을 때 의상 컨셉을 관객들에게 확실히 전달되어 극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성미 이미

지의 패션모델의 미적특성은 여성의 신체이지만 얼굴의 턱선과 발달된 광대뼈 등으로 중성미와 현대적 대담함이 공존하는 미적특성을 패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중성미는 본래 의상의 성격이 강한 남성적임을 보여주는 스타일로 메이크업 컨셉이 눈썹이 두껍고 짙게 표현되고 표현하는 방법과 다양한 스타일링이 중성미를 결정짓는데 영향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각적 대비를 통해 우아미와 중성미를 전달하는 패션모델의 미적특성, 신체적 특성, 신체적 연출을 알아본 결과, 관객은 모델의 위킹을 통해 역동성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입고 있는 옷의 이미지가 표현된다. 거기에 모델의 표정연출과 포즈가 더해져 관객에서 극적인 효과와 시각과 감성적 부분까지 충족시킨다. 이러한 모델은 패션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패션이미지전달자로 패션산업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로 전문화되어지고 현대패션에선 패션아이콘으로 중요한 인적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다. 단순히 입는다는 의복의 개념이 아닌 소비자의 감성적인 부분과 연결 지어 모델의 우아미와 중성미를 나타내는 핸드포지션 연출과 위킹 연출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한 내용들로 모델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음에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패션스타일링의 패턴, 디테일, 실루엣에 따른 룩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연출된 경우가 많았으며 세부적으로 룩이 이미지를 나타내는 자료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며 스타일링의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다양함을 추구하는 현대패션에 지속적으로 다른 패션 이미지를 가지고 좀 더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 고현진. (2003). *복식에 표현된 엘레강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소영. (2002). *패션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소영, 이병화(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체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4(3), 129-143.
- 김주영. (2004). *걸 파워 의상에 표현된 3세대페미니즘 여성성*.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숙영. (2010). *2000년대 후반 회색 패션의 이미지와 미적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수현, 김민자 (2009). 흑인 여성 패션모델의 이미지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59(2), 88-100.
- 박은경. (2005). 현대패션에 표현된 움직임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5(8), 112-126.
- 백형은. (2011). *패션 감성에 따른 토털 코디네이션행동과 패션이미지 선호*.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광숙. (2004). 60년대이후 패션트렌드를 중심으로 본 패션 모델이미지. *한국패션뷰티학회지*, 2(1), 21-33.
- 유소영. (2011). *엘레강스이미지의 미적특성을 응용한 패션스타일링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미. (2008). *마크제이콥스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 스타일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nheim.R. (1987). *미술과 시지각*(김춘일 역). 서울: 미진사.